## 〈반짝반짝 한국어〉 10 가는 날이 장날

Hello and Welcome to Twinkling Korean podcast season 4 episode 10.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.

- F: 안녕하세요. 반짝반짝 한국어의 향기입니다.
- M: 안녕하세요. Stefano 입니다. But... hey why does your voice sound that feeble?
- F: 아. 티나요? 아니, 오늘 점심 때 친구랑 냉면 맛집에 갔거든요.
- M: And... what happened? You don't look like somebody that just ate something good.
- F: 먹었으면 이런 목소리가 나오겠어요? 갔는데 글쎄, 공사중이었어요!!
- M: 네? What kind of construction site?
- F: 그러니까요.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, 문이 닫혀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.
- M: 그래서 그렇게 기운이 없었군요. 그런데 향기 씨, 가는 날이 장날이다? Tha's a proverb right?
- F: 네. 속담 맞아요. 오늘은 이 속담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?
- M: 네, 좋아요. This proverb means having a misfortune. Am I right?
- F: 네. 내 뜻과 다르게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한 경우에 쓰죠. 저처럼요.
- M: But... 장날 is the day that when market is open. If the market is open then isn't is supposed to be a good time to buy things?
- F: 아~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그런데 원래 이 속담은요. 옛날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는데요. Stefano 씨, 이야기 해줄까요? 말까요?
- M: 갑자기 왜 그래요? Yes please tell me.
- F: 제가 오늘 점심을 못 먹어서 그래요. 이 속담이 시작된 이야기는요. 어느 날 한 사람이 멀리 사는 친구를 만나러 친구네 집에 갔어요. 그런데 친구가 마침 그날 서는 시장에 나가서 집에 없는 거예요. 옛날이니까 휴대폰도 없고, 장에 나갔으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, 그래서 못 만나고 돌아왔어요. 그래서 가는 날이 장날이다~ 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, 생각지 못한 일로 하려던 일을 못할 때 쓰는 거죠.
- M: 그렇구나. So that is why people say 가는 날이 장날이다. It sounds very fascinating. 역시 향기 씨~한국사람 맞군요!
- F: 네?
- M: 그런데 향기 씨, I think I have heard this proverb under lucky situations as well.
- F: 그래요? 어떤 상황이요?
- M: 음.. 언제였지? 아 맞다. I went a cloth store with a friend, and I received a pair of socks because it was the five years anniversary of the store.
- F: 와~ 그 행사 끝났어요? 나도 양말 필요한데..
- M: 아이, 참, 그런데 제 친구가 그때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이 그날이네, 라고 말했거든요.

- F: 맞아요. 원래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쓰는 게 맞지만, 요즘에는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도 쓰는 것 같네요. 둘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 거니까요.
- M: So it can be use with fortunated or unfortunated events as well. 오케이~ 나도 다음에 써 봐야지.
- F: 여러분, 오늘 배운 속담은 어땠어요? 속담은 써 봐야 잘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. 여러분 나라에 비슷한 속담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. Stefano 씨, 우리 주소 알려 주세요.
- M: 네, 우리 주소는요. www.facebook.com/twinkling.korean 입니다.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.
- F: 자,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?
- M: 네, 좋아요. 이번 코너는 드라마 속 명대사죠? 오늘 배울 대사는 뭐예요?
- F: 오늘은 드라마 '맨도롱 또똣'에서 나온 대사예요. 시즌 3 에서 나왔던 리조트 사장 송정근과 해녀 김해실 기억 하시죠? 다시 그 두 사람 사이의 대사인데요.
- M: Eventually how do things end with 송정근's unreturned love?
- F: 송정근 사장이 드디어 짝사랑 하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. 해녀 김해실은 만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고민 끝에 마음을 바꾸고 데이트를 승낙합니다. 그때 이렇게 말해요. "까짓 것 한번 해 보죠"
- M: 한번 해 보죠는 알겠는데 까짓 것... What does 까짓 것 mean?
- F: 까짓 것은 특별하지 않은 일을 말해요. 보통 어려워 보이는 일이지만 용기내서 쉬운 일, 별거 아닌일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할 때, 까짓 것 한번 해 보자!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
- M: So it was definitely not easy for 해실 to continue the relationship with 송정근.
- F: 그렇죠. 해녀 해실에게 리조트 사장 송정근과의 데이트는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.
- M: 왜요? Do women desire to date rich men? 신데렐라를 꿈꾸면서 말이지요.
- F: 에이~ 모든 여자들이 드라마 주인공 같은 신데렐라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날 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.
- M: 그렇겠네요. 생활 방식도 다르고 말이죠.
- F: 자 이제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하는 해실의 대사 따라해 보시죠. "까짓 것 한번 해 보죠"\*3
- M: The sound of 까짓 것 is very peculiar anyway.
- F: 그래요? 여러분 오늘 대사 어땠어요? 여러분도 까짓 것 하면서 용기 내서 시작하는 일이 있나요?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. Stefano 씨, 다시 한번 우리 주소 알려 주세요.
- M: 네. www.facebook.com/twinkling.korean 입니다. 혹은 twinkling.korean@gmail.com 으로 메일 보내 주셔도 됩니다. 여러분, 많이 참여해 주세요.
- F: 여러분,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- M: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 See you and don't miss our next episode.
- M: Twinkling Korean,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Gilddong KFL.
- © 2015 Gilddong KFL All right reserved.

